

서울YWCA

202403
04 | Vol.629

“당신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이
모
의

제 102회 정기총회

선한 변화와 생명 살림에 앞장설 것

라운드 테이블
사랑하는
‘꼰대’에게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관상적 응시’로
피조물을 초대하는
마태복음

예술과 삶
자연주의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


쓰레기 줄이는 5R 실천법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2019)」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비 존슨(Bea Johnson). 그가 소개한 5가지 행동 지침을 참고해 나만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노하우 만들어 보아요.




**Refuse
거절하기**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달할 때 주는 비닐봉지, 빨대, 일회용 젓가락, 물티슈부터 거절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죠.

**Reduce
줄이기**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과대 포장 제품은 되도록 피하기.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것도 '줄이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Reuse
재사용하기**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Recycle
재활용하기** 

같은 용도로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 '재활용'은 물건의 용도를 변경하여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Rot
썩히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썩힌 후 유기질 비료나 가축 사료,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물건 구입 시,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필수입니다.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YWCA 2024년 3·4월호 | 629호

3월 공동기도
성령이신 하나님,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장하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 아집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게 하소서. 아멘.

4월 공동기도
위로의 하나님, 유난히 아픈 기억이 많은 달 4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고 어이없게 잃어버린 기억으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시립니다.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의 흔적은 비로 별빛으로 우리 곁을 맴돌지만, 그래도 그리움에 땀 뚫린 마음의 공백이 큼니다. 주께서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소서. 아멘

- 2 **즐거운 불편운동**
쓰레기 줄이는 5R 실천법
- 4 **환대 캠페인**
당신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 6 **제 102회 정기총회 특집**
총회보고
총회사
2024년 서울YWCA 비전사업
2023년 사업보고
- 14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②**
'관상적 응시'로 피조물을 초대하는 마태복음
- 16 **예술과 삶**
자연주의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
- 18 **서울Y 소식**
1·2월 뉴스
3·4월 행사 안내
3·4월 캘린더
- 24 **라운드 테이블**
사랑하는 '곤대'에게
- 26 **후원 소식**
- 29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 30 **일림터**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임옥인, 문학가·서울Y 14대 회장

<서울YWCA> 2024년 3·4월호 통권 제629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4년 3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김유애 배수주 심주리 이재숙 인 미 최문희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당신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장일호
〈시사IN〉 기자
「슬픔의 방문」 저자

저에게는 ‘좋은’ 동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냅다 배부터 까고 보는 깨끗한 모질의 동네 고양이는 좋은 동네의 보증수표입니다. 괴롭히는 인간 따위 만나본 적 없다는 듯 여유로운 고양이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몹시 드무니까요. 동시에 걱정합니다.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로, 이제는 동네 고양이로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길에 사는 고양이에게 사람 ‘손’을 태우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동물 학대 기사가 실제 벌어진 일의 매우 일부분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몹시 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을 피하는 고양이를 보면 안심합니다.

‘츄르’는 고양이 간식의 대명사입니다.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사람도 츄르는 알 정도죠. 그런데 츄르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급여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와 사람이 가까워져야 하잖아요. ‘나’는 학대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람 손을 탄 고양이는 쉽게 학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동네 고양이에게 주기 부적합한 종류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츄르는 염분이 높은 간식이기 때문에 하루 두 개 정도가 적정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사는 고양이는 급여 개수를 관리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동네 고양이는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 동네 고양이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더욱 위험합니다. 고양이는 신장 질환에 몹시 취약한데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균 15년 이상을 사는 실내 생활 고양이와 달리 동네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3년입니다. 다섯 배가 넘는 생존율을 단순히 ‘자연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럼, 동네 고양이를 만나면 무얼 주어야 하나고요? 제가 가방 안에 언제나 서너 개 이상 넣어 다니는 것은 개별포장 된 닭가슴살입니다. 개당 200~4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츄르보다 싸죠? 저는 100개들이 박스로 사서 회사 동료 중 캣맘·캣대디와 나누곤 합니다. 길을 걷다 동네 고양이를 마주치면 그때 포장을 뜯습니다. 천천히 포장을 벗기면서 안심시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먹을 걸 좀 줄게’라고 속삭이면서요. 그리고 멀찌감치에서 잘 조준해 던져주면 끝.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인간이 무언가 던지는 모습에 자취를 감췄던 동네 고양이가 어느새 뺨뺨 고개를 내밀고, 이내 닭가슴살을 입에 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는 성질 급한 고양이도 있지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닭가슴살을 물고 돌아가는 고양이의 뒷모습은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꼬리를 한껏 올린 채 사라지는 고양이의 뒷모습은 ‘환대’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닭가슴살만큼이나 제가 공들여 챙기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제 메모장에는 ‘작은 선물 목록’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

습니다. 선물의 핵심은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이잖아요. 1만5000원~2만원 사이, 크게 취향을 타지 않는 물건의 목록을 고심해서 썼다 지우는 일은 저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핸드크림, 립밤, 핸드타월, 비누, 꿀, 캐러멜, 소금, 치약, 양말 같은 작은 물건에도 얼마나 다종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던지요. 어디선가 마음을 다쳐 돌아온 밤이면 저는 목록을 쭉 훑으며 그 제품과 어울릴 얼굴을 각각 떠올려보곤 합니다. 그이와 다음에 만나는 날을 헤아리고, 미리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구겨졌던 마음도 조금은 펴지는 기분입니다.

언제나 실패하지 않는 선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집입니다. 유명한 시인도 좋지만, 첫 시집을 낸 신인들의 시집을 부러 골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무언가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덥석 줄 수 있도록요. 가볍고, 싸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시집의 장점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선물한 시집은 전주진의 <여름의 사실>(창비, 2022)이었습니다. ‘이 세상에//그래도 한번은 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팩트 체크’ 중)라고 쓰는, 시인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환대를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줌’이라는 의미를 덧붙여봅니다. 내 안에 타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 그 마음 씀이아말로 제가 생각하는 환대의 본질입니다. 타인이 아닌 타자라고 힘주어 씁니다. 비인간 동물들 역시 ‘우리’를 구성하는 존재들이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인도의 잠언 시집 <수바시타>에는 이런 문구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나 아닌 것들을 위해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날이 닥쳐도 스스로 험해지지 않는다.”(< 모멸감 >, 문학과지성사, 2014 재인용) 그러니 환대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 102회 정기총회

선한 변화와 생명 살림에 앞장설 것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이어간다

서울Y는 제102회 정기총회이자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를 1월 25일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개회예배로 시작된 본회의는 추모, 시상, 2023년 감사·결산·사업보고,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정관변경,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조연신 회장은 총회에서 “서울Y는 사회의 선한 변화를 꿈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자치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지역운동조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과 힘찬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Y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올해도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22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칠 계획이다.



추모

2023년 별세한 자원활동가의 Y에 대한 헌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추모 故 김계월 명예위원

감사패 증정·시상

2023년 서울Y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근속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회원증모를 많이 한 회원을 표창했다

감사패

사회복지법인 우양	유한김벌리
재단법인 하나금융나눔재단	(주)아모레퍼시픽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주)엔에스쇼핑
(주)엘지생활건강	한국직업능력진흥원(주)
김영자(명예위원)	배은경(부회장)
이행자(증경회장)	조연신(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11기 동창회	

봉사상

50년	백지혜
40년	김정순
30년	윤상은 이경순
20년	이필영 하진욱 현명금
10년	문경혜 배정미 백향덕 인 미 제혜자 최윤주
2,000시간	김말희



50년 봉사상 수상자 백지혜 명예위원(왼쪽)과 조연신 회장

근속상

10년 근속실무자	박진선
10년 근속강사	양수정 이은자 현계정 황지민

이연배 봉사상

양선희(전 사무총장)

회원증모 개인상

우영숙	정수경	황성연	조연신	배은경	이종미
이유림	전영지	한혜영	민혜경	임혜원	김혜옥
최하나	백향덕	이인순	최 봄	김선덕	성지희
김양선	박진선	이복희	백옥선	심혜영	이경연
김은희	오점희	배정미	정선덕	김영자	김명희
김경화	김순임	이지선	김현일	현명금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올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연신 회장

강한 생명력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 첫 달, 정기총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 참여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습니다.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팽배해지며 현대 사회가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견리망의 속에서 심화 되어 가는 분열과 갈등,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혼란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YWCA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서울Y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시민아카데미를 비롯해 살림의 주일학교 교육을 상상하는 공론장,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CBS와 성경 속 여성인물을 조명하는 성경동화를 제작·배포해 회원과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명운동도 쉬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불편운동을 독려하는 나의 불편일지 소책자를 제작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과

손잡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을 맞아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고,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남 청소년수련관의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응원을 나눴습니다.

올해도 서울YWCA는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통산 제102회이자, 사단법인으로는 4회째인 오늘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자치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지역운동조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힘찬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비전사업으로 서울Y는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땅의 모든 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꾸어가는 서울Y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 로마서 8장 6절, 새번역

사랑하는 서울Y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간절한 시대, 서울Y 가족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살림에 앞장서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

2024년 서울YWCA 비전사업 100개의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024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2022년 22개, 2023년 20개의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는 28개의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평등 세상을 만드는 미디어 아카데미
- 성평등 미디어 칼럼 발행
-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글로벌 시민의 눈으로 보는 세상
- 국제 리더십 개발사업: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아카데미
-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 청소년·청년 리더 교육
- 코리안디아스포라 평화교류
- 시민건강교실: 편안한 환경을 위한 준비
- 창립 100주년 W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사업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신혼부부학교 함께 챌린지
- 퇴소 청소년 독서모임: 책책책 책읽아웃
- 창립 100주년 Y기금: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 새로운 기부문화 프로보노 네트워킹: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 고액 후원자 여행: 헤리티지 라이브
- 서울Y 2세대 모금 뉴웨이브(New Wave)
- 생산·유통과 함께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 저성장 시대 소비자 경제 리포트
- 공존을 위한 기후정의 프로젝트
- 즐거운 불편운동 시민확산 프로젝트
- Y-틴, 대학·청년Y 다(多)다(多) 멘토링
- 공존의 패러다임을 꿈꾸는 청(소)년 사회이슈 토론회
- 성인지 관점의 기후정책 모니터링
- 자기-생태돌봄 프로젝트

정의·평화·생명 공동체 실현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다누리 구직회원 모집 활성화
- 그리스도의 평화와 환대를 배우는 어린이 목상집
- 2024 기독교시민아카데미
- 고문서 전자화 사업
- 서울YWCA 100년사 발간

2023년 사업보고

팬데믹 후 소통과 연대 활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지속 전개



김양선 사무총장

마음의 경연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서울YWCA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서울Y 역사를 열었던 선배님들의 첫 마음과 사명을 생각하며 현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각오로 가슴 설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사업들과 대면 행사가 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통과 연대가 활발해졌고, 정의·평화·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등을 넘어 평화로'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를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2023 사업보고 &
2024 사업계획 영상 보기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023

평등을 넘어 평화로

서울Y는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며 여성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을 맞이하며 성평등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며 성평등 미디어 운동의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여성 청년, 시민과 국제·기후·젠더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평화 가치에 기반해 이슈들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청소년 평화통일활동가 양성교육과 청년 평화활동가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청소년 평화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세계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성평등 미디어 운동 10주년 기념 아카데미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서울Y는 공동체적 삶으로의 회복과 치유, 소외되는 인간과 생태계 문제에 주목하며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MZ세대 신혼부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부 챌린지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경청과 공감,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00주년 'C'기금을 활용한 기후위기 피해 빈곤노인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층의 기후위기에 주목하며 '살고 살리는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캠페인과 제로 웨이스트 교육 등을 진행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치소비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시판 중인 텀블러를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 기업이 판매 전략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치소비 실천을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과 분리배출이 쉬운 소재 개발에도 적극 힘을 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제로 웨이스트' 실천 불 조성 사업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기독교 영성이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영성으로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생태여성주의를 성서적 가치관으로 성찰하며 기독교적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CBS와 공동으로 '성경동화-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시리즈'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 신앙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기독시민아카데미 진행으로 인문학과 철학, 사회적·신학적 사유와 성찰로 사회적 영성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시민아카데미



서울YWCA x CBS 공동제작 '성경동화 -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시리즈'

성경동화 영상 보기



회원활동

회원조직운영은 회원 참여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소 여자 청소년 북멘토링, 자립준비청소년 후원사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과 함께 서울Y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력·훈련 개발

자원·실무활동가 훈련은 5개년 비전 계획의 핵심 가치인 영성·운동성·지속가능성의 활동가 역량 내재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위원연구모임과 정책워크숍, 법인 이사교육, 영성훈련, 실무자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위원 연구모임 '생태여성주의와 YWCA 기후위기운동'

홍보·재정

홍보출판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서울Y의 1950-60년대 자료를 중심으로 종이 고문서 전자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24년 100년사 편찬을 목표로 자료 정리와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서울Y 재정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으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고 임대·대관사업도 활발해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속시설

부속시설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남청소년수련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각기 위치한 지역과 이용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봉천은 동(洞) 중심으로 실무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과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등포와 노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직업과 직무능력 향상, 직업상담·취업알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강남은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누리봄은 폭력의 세대 전승 방지를 위한 자립 기반 구축,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3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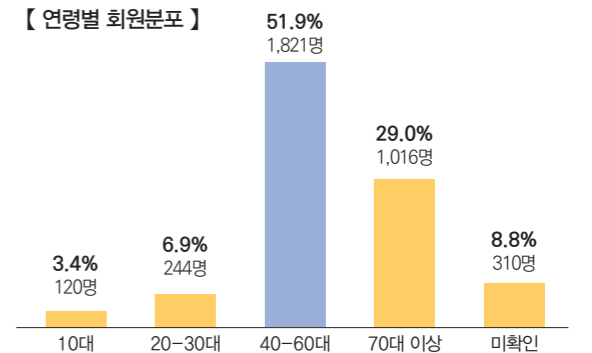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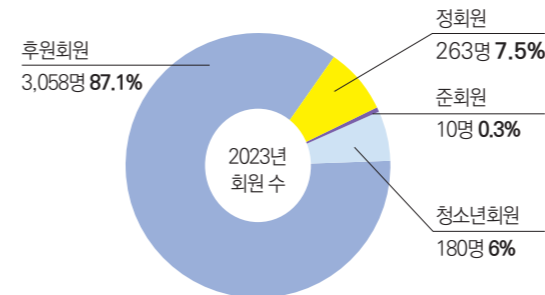


강남청소년수련관 30주년 기념식

서울Y 새로운 한 세기의 역사를 시작하며 변함없는 공동체 의식으로 기도와 격려, 헌신으로 함께해주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회원,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사업보고를 드립니다.

2023년 회원 현황

회원 3,511명



기후위기시대, 생태정의를 위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성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찾아봅니다

‘관상적 응시’로 피조물을 초대하는 마태복음



최광선
덕신교회 담임목사

어느 날 작은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이 돌봐주었던 어린 길고양이인데, 방학이 되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큰아이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고양이가 집에 오니 가족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를 “꿈이”라 부르며 밥을 알뜰하게 챙겨주는 아내와 “꿈이”를 가슴에 품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속에서 “꿈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 풍경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천교의 시대로 진입

만남은 변화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시대를 예수결핍증후군이라 진단하며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생태영성을 전공한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읽습니다. 성경이 지닌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요소 등을 배제

하지 않지만,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과 만남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연구라기보다 기도에 가깝습니다. 복음서를 생태적으로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세계가 누리는 새로운 천교의 시대로 진입할 것을 확신합니다.

산상수훈, 생태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

생태적인 시선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며, 특별히 산상수훈에 주목했습니다. 산상수훈만큼 많이 인용되고, 영향을 끼친 성경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총 111절에 이르는 산상수훈에는 생태적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많습니다: 산, 땅, 소금, 빛, 마을, 등불, 돛박, 등경, 천지, 눈, 온몸, 손, 하늘(하나님의 옥좌), 땅(하나님의 발등), 머리, 카락, 햇빛, 비, 오른손, 왼손, 회당, 길모퉁이, 골방, 땅, 양식, 기름, 땅에 쌓아둔 재물, 하늘에 쌓아둔 재물, 등불, 빛, 어둠, 목숨, 음식, 몸, 옷, 새들, 씨, 곳간, 들꽃, 옷, 꽃, 티, 들보, 진주, 돼지, 빵, 생선, 뱀, 돌, 좁은 문, 좁은 길, 양의 털, 사나운 이리,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나무, 불,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반석, 집, 비, 큰물, 바람,

산상수훈은 또한 생태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석, 모래 등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생태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생태적 구절에 녹색을 칠한 그린 바이블(The Green Bible)에는 마태복음 전체 1,071절 중 105절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생태적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생태위기의 뿌리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을 듣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중략)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 6:24)”고 하셨는데, 우리는 맘몬을 숭배하며 탐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의 성(城)에 갇혀 더 많이 움켜쥐면 안전할 것이라 믿는 우리들이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눈’ 바꾸기

산상수훈은 생태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신앙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 요구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옥좌, 땅은 하나님의 발판(마 5:34-35)”이며,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며, 들꽃도 입히시는 분(마 6:26-30)입니다. 소금과 빛, 햇빛과 비, 티와 들보, 진주와 돼지, 빵과 돌, 생선과 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반석과 집 등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룩한 책(Book of Creation)

입니다.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Elizabeth Johnson, 1941-)은 “공중의 새를 보아라(마 6:26)”와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마 6:28)”라는 구절을 “관상적 응시(contemplative gaze)”로 해석했습니다. 탐욕의 눈이나 교만한 눈이 아닌 하나님 현존이 가득한 거룩한 피조세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

산상수훈은 또한 생태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돌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유지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것을 회개하며 절제와 검소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음하는 피조물과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들을 떠올리며 황금률을 읽을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듣고 행함에 있듯이, 작은 일 하나라도 지구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며 행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성경을 읽는 열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중 산상수훈에 집중했습니다. 그 안에는 생태위기의 뿌리에 대한 진단이 담겨 있고,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겼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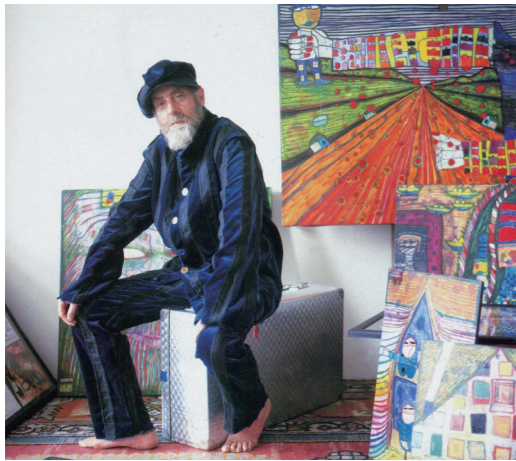
* 다음 편에서는 길 위의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복음과 함께 펼쳐치며 여러분을 갈릴리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최광선 박사는 생태중심도시 순천에 있는 덕신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자연은 벗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경이라 말한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아파하며 예수님 길을 묻는 구도자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 신학부에서 생태영성을 전공(Ph.D)했다. 공저로 '지구 정원사 예수'가 있다.

자연주의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프리덴스라이히 레겐탁
둔켈분트 훈데르트바서
1928. 12. 15- 2000. 2. 19
Friedensreich Regentag
Dunkelbunt Hundertwasser

훈데르트바서는 화가이자 건축가이며 환경운동가로서 그림, 판화, 태피스트리, 그래픽 등과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을 남겼다. 그의 작품 기저에는 생명, 자연, 평화, 조화라는 그의 사상이 담겨 있으며, 풍부한 색채와 자연스러운 곡선을 통해 표현했다. 훈데르트바서의 본명은 프리드리히 스토바서이지만 20세 이후 몇 번의 추가적 개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리덴스라이히(Friedensreich: 평화의 왕국) 레겐탁(Regentag: 비 오는 날) 둔켈분트(Dunkelbunt: 짙은 색이 다채로운)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백 개의 하천)로 변경되었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고 비 오는 날을 아름답게 여긴 훈데르트바서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릴 만큼 다양하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다. 1971년부터 그가 생활하고 작업했던 배의 이름 '레겐탁' 또한 그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색채와 형태에 남다른 감각

훈데르트바서는 192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살 때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 그 후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그의 가족은 외가가 있는 오베르로 강제이주 당한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 친척 69명이 몰살당하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다뉴브 운하 근처의 오버레 도나우슈트라세에 있던 게토(유대인 강제격리구역)에서 지내게 된다. 훈데르트바서는 평생 동안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작업했다. 그런 까닭에 두 번의 결혼 생활(1958-1960, 1962-1966)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색채와 형태에 남다른 감각을 지녔다고 평가받아 왔던 훈데르트바서

는 학교에서 원근법을 제대로 그린 첫 번째 학생이었지만 그 방식대로 그리고 싶지 않아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첫 학생이기도 했다. 그가 받은 정규 예술교육은 1948년 빈 예술학교에서 3개월 수학한 것이 전부이다. 1950년에 다시 파리에 있는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지만 하루 만에 자퇴한다. 형식에 매이기 싫어했던 그는 작업실 없이 머문 곳 어디에서든지 종이나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작업했다. 또한 유화, 수채화, 템페라 등 대부분의 물감을 직접 만들어 한 작품에 다양한 종류의 물감, 흙 등을 사용했으며 포장지를 재활용해 그림 그리는 것 또한 즐거웠다. 그의 그림에서 중요한 특징인 나선형은 1960년부터 드러나는데 그에게 나선은 생명과 죽음의 상징이며 식물의 나이트와 같이 자연스런 움직임을 가진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훈데르트바서가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50년 대부터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완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1970년에 처음으로 건축 모형을 만들었으며 1983년 공공주택을 리모델링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를 만들면서 건축가로서의 이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스킨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보호하는 5개 층을 피부, 의복, 집, 사회, 지구(환경)로 구분하며 건물을 세우면서 빼앗은 식물의 공간을 식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의 기능주의적 건축물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의 건축물은 직선이 아닌 자연의 형태인 곡선을 이용하고 건물 주위에 식물을 많이 심고 흙, 벽돌, 화강암, 목탄 등의 자연주의적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으며 색상도 녹색, 짙은 갈색, 검정색 등을 사용해 자연과 어울리게 했다. 그의 자연주의 건축 사상은 1997년 오스트리아 동부 블루마우에 세워진 온천마을 호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흰색을 기조로 빨강, 분홍, 하늘색, 갈



로그너 바드 블루마우(Rogner Bad Blumau) 호텔 (1997)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선과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외벽, 금색 돔, 24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창문 등이 훈데르트바서 건축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색 등 다양한 색채로 단장한 서로 다른 곡선형의 건물들이 놀이공원처럼 잔디, 나무들과 어우러져 있다. 훈데르트바서는 건물은 대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무시하고 지붕에 흙을 덮어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대지 아래에 건물이 들어간 느낌의 호텔 단지를 완성해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난쟁이 호빗족의 집을 연상시킨다.

1993년에는 자연과의 소통, 자연의 영역 환원, 자연에 대한 관용, 자연과의 재결합,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재생, 자연의 순환이라는 7개 내용의 <자연과의 평화조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에 메마른 건축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한 그에게는 '건축치료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환경보호상을 수상할 정도로 여러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했던 훈데르트바서는 엘리자베스 2호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2000년 2월 19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뉴질랜드에 있는 그의 마당인 '행복한 죽음의 정원'의 톨립나무 아래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갔다. U

헤라이즌(HERizon) :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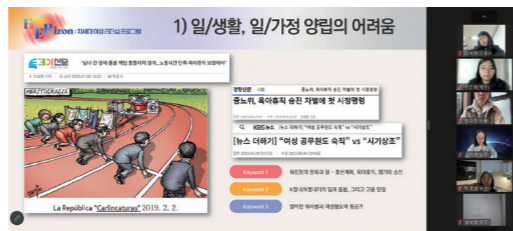


서울Y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여성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HERizon(헤라이즌):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시작인 오픈링 세레머니가 1월 19일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열렸다. 오픈링 세레머니에는 서울·제주·부산·평택·광주·강릉 지역에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총 36명의 여성(만 25~35세)이 참여했다. 조연신 회장과 한미미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부대사의 축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안지혜 디렉터(진저티 프로젝트)의 가이드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며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을 쌓았다. 또한 송진순 교수(이화여대 외래)의 주제 강연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5월까지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지역 아메리칸 코너(주한미국대사관 문화원)에서 '2강-내 능력에 대한 확신,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가 진행됐다. 신지수 임상심리전문가(강남세브란스병원)는 다양한 스킬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왔다.



2월 14일에 진행된 '3강 변화의 길을 찾아서: 직업 현장에서 젠더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대응 방법 찾기'에서는, 최김하나 연구원(인권정책연구소 객원)과 함께 직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불평등 현실을 살펴봤다. 직업 현장에서 여성리더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불평등 사안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코칭이었다.



헤라이즌은 5월 17일까지 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위해 계속될 예정이다.

강남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역량강화교육

강남청소년수련관은 2월 2일 학교폭력예방강사, 수련관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강사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마약'의 종류, 주의사항, 예방방법, 청소년 지도 방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 약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등포 집단상담 프로그램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교육생 15명이 참가했으며, 교육생들은 희망 직업 검토와 직무 탐색, 자기 이해, 채용정보와 강점 기술 탐색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했다.



봉천 '함께여서 갑진(甲辰)설날'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6일 설날맞이 행사 '함께여서 갑진(甲辰)설날'을 열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64명을 초청해 전통놀이, 봉천노래방, 새해 덕담 나눔,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또한 급식서비스 이용 어르신 185명에게는 김, 꽃감, 홍삼 중 원하는 선물을 전하며 명절의 풍성함을 더했다.



누리봄 주거 환경 개선

누리봄은 1월 2일부터 14일까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Love House Project'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과 '한샘'의 후원으로 침대 매트리스, 소파, 식탁, 책상, 의자, 수납장, 서랍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누리봄 거주 18가정(총 54명), 특히 아이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건강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빛 C기금 '함께 사랑' 사업 성과공유회



서울Y는 1월 11일 창립 100주년 C기금으로 추진한 기후위기 피해 빈곤노인 지원사업 '함께 사랑' 성과 공유회를 마루에서 열었다. 이번 사업으로 다일복지재단, 서울성남교회앞마을복지센터,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오병이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4개 지역복지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무의탁, 독거 노인, 동자동 등 쪽방 어르신 대상 건강식(5회, 1,031명) 제공, 주거환경개선(9회, 36세대), 마을사랑방·무더위쉼터 운영(27회, 933명), 문화체험·정서지원(4회, 672명), 기후위기 대응 교육(5회, 585명)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성과 공유회는 결과 발표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연대의 의미와 보람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2030 청년단 발대식



서울Y는 1월 31일 '2030 청년단' 발대식을 회관 마루에서 열었다. 서류심사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청년단원과 사회운동국 실무자가 참석했다. 2030 청년단은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청년, 성평등, 기후위기 관점에서 서울Y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운동 전략과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다크패턴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서울Y는 1월 26일 회관 대강당에서 '다크패턴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크패턴(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서울Y는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조사(2023년 8-9월 중, 94개 쇼핑몰 대상)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15개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공정위 주무 부서가 참여해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온라인 거래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동아리 모집

청년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분단의 장기화로, 일자리와 경제 이슈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평화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대상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 활동 시간 매달 셋째주 토요일 13:00-15:00
서울YWCA 또는 온라인
- 활동 내용 평화통일리더양성교육·워크숍 기획 연구모임, 평화통일리더십 캠프, DMZ 평화 걷기, 코리아안디아스포라 평화교류

평화아카데미 운영진



- 혐오, 차별,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요즘, '평화'를 주제로 인간의 존엄과 평화 이슈에 대해 논하고 평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 * 2024년 주제 : 사회 정의, 문화적 갈등, 지역 갈등, 기후위기, 디지털, 보전 등 (주제는 함께 연구하며 조정 가능)
- 대상 '평화'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싶은 청년
 - 활동 시간 매달 셋째주 토요일 10:00-12:00
서울YWCA 또는 온라인
 - 활동 내용 콘텐츠 제작 연구모임, 청소년 교육

공동사항

- 기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 방법 구글 폼 신청(상단 QR 코드 연결)
- 활동 기간 2024년 3월-2025년 2월
- 활동 혜택 봉사시간 부여, 임원 활동 시 장학생 추천, 우수활동가 선발 시 추천서 발급
- 회비 1인 11,000원
- 문의 평화운동팀 02-3705-6023

교육프로그램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SW-AI융합교육전문가 양성	3월 25일(월)-7월 4일(목) (월-목, 9:30-13:30)
지역아동돌봄전문가 양성	4월 8일(월)-7월 4일(목) (월-금, 9:30-13:30)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4월 22일(월)-7월 9일(화) (월-금, 9:30-13:30)

영등포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세무회계사무원	4월 15일(월)-8월 2일(금)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3월 26일(화) 15:00
무역 및 관세사무 실무자 양성	4월 17(수)-6월 14일(금) (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3월 29일(금) 15:00
ERP아파트경리 사무원 양성	4월 23일(화)-6월 21일(금)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4월 2일(화) 11:00

- 신청 각 기관 홈페이지
- 교육비 전 과정 10만원 별도 (수료·취업시 환급)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4월 23일(화) 10:00	1만원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2만원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3월 14일(목) 4월 24일(수) 10: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CALENDAR 2024 3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 씩크머니 오리엔테이션 13:00

4 5 **위원회** 재정부 11:00 6 7 8 9
· 돌봄회원 임원훈련 10:00
· 키다리학교 신입생 선발 면접 10:00
· 그린Y 오리엔테이션 11:0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14:00

11 12 **이사회** 10:00 13 14 **위원회** 여성참여팀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평화아카데미 10:00
· 씩크머니 정기모임 13:00

18 19 **위원회**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노원Y 12:30 20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 청년커뮤니티 은하수 11:00 21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22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3
· 키다리학교 10:00
· 그린Y 정기모임 11:00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 소리모아 오리엔테이션 18:30
· HERizon 6회차 강연 15:00 28
· 이사·위원 연구모임 9:30 29 30
· 피스톡톡 13:00

CALENDAR 2024 4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위원회** 재정부 11:00 3 4 5 6
· 씩크머니 정기모임(20일) 13:00

8 9 **이사회** 10:00 10 **22대 국회의원선거일** 11 **위원회** 여성참여팀 11:00 12 13
· 돌봄회원 소풍 10:00
· 키다리학교 10:00
· 그린Y 정기모임 11:00

15 16 **위원회**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노원Y 12:30 17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18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19 **위원회** 강남Y 11:00 평생체육팀 11: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돌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10: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평화아카데미 10:00
· 피스톡톡 13:00

22 **위원회** 봉천Y 11:00 23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아기돌보미 10:00 24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25 26 27
· 청년커뮤니티 은하수 11:00

29 3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사랑하는 '꼰대'에게

'꼰대'의 첫 마음을 이해하게 된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어린 이들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일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던 일, 특히 시련을 가져다준 일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그 시작이었다. 아마 그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테지만, 전달하는 언어와 태도가 우리를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꼰대'의 직설적인 언어 이면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그의 말은 '어명'과도 같았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 틀 안에 나를 맞추어갔다. 그러다 성장의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투쟁했다.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내가 경험해보고 싶고, 내가 경험해보아야 알기 때문에 할(갈) 거야"**라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꼰대'는 그 이후로 내가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했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늘려갔다.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의 언어는 나의 감수성을 거슬리게 하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이면의 애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결코 참을 수 없는 순간도 있다.

언젠가 속해있던 공동체의 어른이 '청년들이 그곳에 남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단기적인 업무나 일회성 행사의 성공을 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고 버텨내고 해낼 수 있는(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 같은 자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삶의

그러니 알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린놈들이 뭘 알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들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은 너무 주위를 둘러보고 멈춰서고 넘어진다고 말한다

경험들을 지닌 이들의 너그러운 마음 같은 것 말이다. 기성세대의 언어 속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하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주위를 둘러보고, 멈춰서고, 넘어진다고 말한다. 'N포 세대',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회 앞에서 청년들은 계속 포기하며, 포기가 더 나은 방법으로 여긴다. 그 포기에는 인간의 무력함이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아탄력성 / 회복탄력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취 경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자원을 쌓아가야 한다. 물론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회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주는 어른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절실하다.

"어린놈들이 뭘 알아!"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그러니 알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너끈히 말을 건네는 용기에, 무작정 도움을 주는 것도 무관심도 아닌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의 물음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정하고 상냥한 마음에 기반한 각자의 언어로, 자신의 뜻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꼰대'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젊은 꼰대도 물론이다. **사실 이것은 다른 시선과 언어로 살아가는 모든 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무엇보다도, 성급한 일반화의 기준으로 분류된 세대의 관점에서 서로를 규정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오롯한 고유성을 지닌 개인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어느 곳에도 정답은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공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시선과 언어를 건네는 사이가 되기를... ♪ 클나무(활동명)

단 7일만에 속부터 꼭 차오르는 밀도 탄력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2024년 1월

특별 후원



-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위원회
- 회보 제작 (주)엘지생활건강
- Carry the Merry 기금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배은경 백경집 조연신
- 유한킴벌리(주)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4년 1·2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일반 후원



강서현 고려욱 고선혜 곽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 형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욱
 심영자 양수경 염현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전동숙 정문옥 정석옥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월요카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도너월 업그레이드



- Y-Club(5백만원 이상) 김양선
 한국직업능력진흥원(주)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운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창 진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카페

월 CMS 후원



김윤우 김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미영 강민아 강선경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은영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홍애 공영주 공민희
 공우재 광동윤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지혜 권태진 권혁준 권현준 권형하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노영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옥 박영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영 박미용 박병주 박상건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관채 박상수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기호 김나영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현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김동형 김두희 김말녀 김명수 김명후 김문자 김문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영
 김민기 김민성 김민숙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 현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김선덕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민 김성민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욱 방윤우
 김성애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민주
 김순남 김순임 김순자 김순자 김승재 김시은 김애숙 백성원 백옥선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향덕 백향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략원 서미화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해 서빛나 서영미 서예석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석성화 석성욱 석영미 성경란
 김우인 김원경 김원경 김유성 김유진 김윤나 김윤종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진원 성호숙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손승혜 손승희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송세은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님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승 신경자 신동선 신민자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욱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찬용 신총섭 신현미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심경호 심재원 심정자 심주리 심혜영 안성포 안성훈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호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운 안영호 안유진 안윤희
 김지희 김진서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안정국 안정희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혜리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양세진 양수정 양영소 양종숙 양진영 양현욱 엄수길
 김태경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해정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연아 오영아 오은주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용윤희 우수경
 김현진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희숙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김효숙 김효은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정 남궁진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은희 남희숙 노남례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노미선 노승은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혜환 동지현 윤광미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상은 윤 선 윤선영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정범 윤재복
 문미현 문신환 문은식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현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하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혜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정창용	정해윤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제오복
이봉희	이상명	이상옥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선미	조계연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억	조남임	조대신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조명희	조미선	조민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조중희	조진영	조형윤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명애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주민숙	주소는	주우철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영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지영찬	지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승화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이은숙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최문정	최민영	최민호	최 붐	최봉수	최새름	최서래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최선미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이은희	이응열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이재옥	이재욱	최승환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이정현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영	최혜원	최호길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중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태성	하태진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이채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이혜미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이희남	이희전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임선미	임성준	임순화	임양수	임연수	임완철	임재연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운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임재영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하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석귀	장선희	장수용	황윤희	황주혜	황지희				
장순복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주)건축사사무소빅	그린에이전시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전영삼	전영지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옥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파티인테이블	항기나무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동신	정문옥	정미선							
정미성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2024년 위원장 · 부위원장 임명

2월 13일(화) 열린 이사회에서 조연신 회장은 16개 상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이다.

임원회

회장 조연신
부회장 배은경 최한나
서기이사 이복희 이희전
회계이사 정수경 전영지
사무총장 김양선

법인사무팀

국장 민혜경
부장 박혜리 간사 박은지

상임위원회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장 배은경 사무총장 김양선

재정부

위원장 최한나
사무총장 김양선
부장 박미용 간사 배진영 사무직원 박은숙

여성참여팀

위원장 전현숙 부위원장 김소임
국장 최 붐 부장 김예리 간사 이기쁨

회원활동팀

위원장 황성연 국장 민혜경
부장 김경화 이인순

청소년팀

위원장 배정미 국장 최 붐
부장 양진화 간사 문신환

국제협력팀

위원장 현명금 부위원장 한미미
국장 최 붐 간사 이지은

소비자환경팀

위원장 이복희 국장 최 붐
부장 박진선 팀장 김현숙 간사 김진아

시설운영·사업팀

위원장 이은령 국장 민혜경
부장 오점희

평생체육팀

위원장 이지선
국장 민혜경 부장 오경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한혜영 국장 김혜옥
팀장 정승원 간사 윤희경

홍보출판팀

위원장 전영지 국장 민혜경
부장 성지희 팀장 김현숙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이경연 관장 김은희
과장 김침민 황윤희 임선미 최지희
사회복지사 황소영 이정훈 전하라 최민영
김지호 이연수 용현중 김예은 조한슬
백지우 오민아
사무직원 임춘화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이희전 관장 강민아
부장 김현일 과장 백승자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백향덕 관장 우영숙
부장 방윤옥 과장 성윤수 팀장 구수영
간사 이유리 최선미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정선덕 관장 이종미
부장 강주현 과장 성호숙
팀장 이슬기 김소망
청소년지도사 최유정 김지은 김현진
다함께키움센터(청담) 센터장 김미라

누리봄

위원장 정수경 관장 백옥선
과장 정은하
사회복지사 윤미소 유현숙 이혜원 이은희
최유나 백은선 임혜연

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유림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은령

특별행사준비위원회

2024 위원장 이희전 관장 이종미
2025 위원장 전영지

회원증모위원회

위원장 정선덕 국장 김혜옥

큰장날위원회

위원장 이은령 국장 민혜경

회원건강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선 국장 최 붐

복지사업단

위원장 배은경 국장 최 붐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소식

이유림 직전회장

아들 하준호 씨

4월 6일(토) 낮 3:30

The 1909(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혼

전북남 역대이사·전 홍보출판 위원

5월 8일(수)-14일(화)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 <와당이야기> 개최

서울Y 위원 활동을 시작하세요!

여성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합니다.

성평등 미디어 운동, 기독교성주의 운동,

생태여성주의 운동을 함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Y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여성운동팀 02-3705-6097, 6070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문의 02-3705-6030

서울Y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극단 축

창의적인 여가 문화생활 영위와 연극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극단 축에 서울Y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14:00

•신청 대상 연극에 뜻이 있는 서울Y 회원 누구나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YWCA 합창단

아름다운 노래와 성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 깊은 YWCA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보세요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13:00

•신청 대상 노래와 합창을 사랑하는 서울Y 회원 누구나

•문의 김희순 단장 010-3687-9647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705-6034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임옥인

문학가·서울Y 14대 회장
1915-1995

1915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난 임옥인 선생은
함흥 영생여고보를 거쳐 일본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모교인 영생여고보와 원산 루씨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광복 후 1945년 함경남도 혜산진 대오천에 가정여학교를 설립하고
야학을 통해 농촌부녀계몽운동에 헌신했다.

월남 이후에는 창덕여고 교사, 건국대학교 교수,
월간 <부인경향> 편집장을 지냈으며

1957년부터 본회 이사로, 1975-77년에는 회장을 맡아 일했다.

‘문학이 사회계몽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던

임옥인 선생은, 추천과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문장」지 추천으로 등단(1939)한 첫 여성작가였다.

당시 <후처기>, <봉선화> 등 문장지 추천작에는

시대적 조건과 환경의 열악함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자아를 지키며
주위를 계몽하고자 하는 실천적 풍모의 신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선생은 1957년 <월남전후>로 자유문학상을,

이후 대한민국 예술원상 문학공로상,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임옥인 선생은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찬송가 592장)’
작사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십 편에 이르는 그의 문학 작품 전면에는
사랑과 인고의 기독교 신앙정신이 짙게 깔려 있다.